



“발차기란 이런거야” 6일 서울 국기원에서 열린 2006년도 전국 남녀 우수 선수 선발대회 겸 2007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예선대회 남자부 웰터급 예선 경기에서 경원대 최민수(청)가 경희대 황대성(홍)에게 발차기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체육회 우수선수 확보 속알이

“고향명에 드높일 인재
돈 없어 빼앗겨선 안돼”

내년 광주 전국체전 앞두고

유망선수 유출 방지책 고심

고향의 명예를 드높이는 아마추어 체육인들의 자치인 전국체육대회가 ‘돈잔치’로 전락하고 있다.

체육예산이 풍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신지와 상관없이 우수선수들을 고액의 비용을 들여 스카우트해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는 등 지역간 대결인 전국 체전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이때문에 광주와 전남도 체육회는 예산안으로 우수한 연고선수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으며 2007·2008년 연이어 전국체전을 개최하지만 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을 예상한다.

전국체전은 과거 선수들이 소속팀을 떠나 고향의 명예를 위해 뛰는 체육축제였지만 몇년전부터 체육재정이 풍부한 시·도에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우수선수들을 대거 뽑아가는 관행이 널리 퍼지면서 체육예산이 많은 곳이 상위권 성적을 독점하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체육회 예산은 64억 3천 500여만원, 전남은 67억 7천 200여만원으로 5연패를 달성한 경기(120억여원), 서울(110억 8천여만원), 부산(100억 9천여만원), 경남(90억여원), 경북(81억여원) 등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광주·전남과 중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천(76억여원), 대전(69억여원)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같은 예산부족 때문에 우수선수 스카우트 예산이 고사하고 연고 선수마저 타 시·도에 빼앗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04년 승마에서 2천여점을 획득했던 서정균은 고액 연봉을 받고 경남으로 이적,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연봉 4천만 원을 받던 박재홍도 8천만 원에 경남으로 이적, 승마 대강에 물에서 금을 따냈다.

이외에 육상 정순욱(여)은 지난해 경북 안동으로 이적했으며 펜싱 김승규와 주현승도 각각 화성시청으로 적을 옮기는 등 전남의 금메달리스트들이 연봉 때문에 이적해 타 시·도에 점수를 보태주고 있다.

광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광주체고 여자 레슬링부는 전국에서 최초로 팀을 만들었으나 연봉 3천만~4천만 원을 줄 수 있는 실업팀이 없어 이소라, 박영미 등 확실한 금메달리스트들이 모두 이적해 타 시·도에 메달을 안겨주고 있는 형편이다.

양궁 장용호는 경북, 홍성철은 충남, 수영 여자일반 자유형 100m 박인화는 제주에서 뛰면서 메달을 선물하고 있으며 역도 남자 일반 69kg급 이배영은 경북으로 출전해 올 체전에서 금 3개를 따냈다.

특히 올 체전에서도 각 시·도는 치열한 순위 다툼을 위해 우수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

광주·전남은 기록종목인 수영, 볼링 등 배점이 높은 종목 우수선수 스카우트에 나섰지만 타 지자체보다 많은 계약금과 연봉을 줄 수 없어 우수선수 이적은 단 1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광주·전남의 우수지도자들이 개별적인 인연을 동원해 선수들을 접촉, 타 시·도보다 적은 연봉에 광주·전남에서 뛸 것을 약속받았지만 그마저도 예산부족으로 데려오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현재 국가대표급이나 확실한 금메달리스트(다관왕)의 영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여 원의 연봉을 제시해야 하며 고교선수들의 경우도 부모들이 훈련보조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역 체육계 관계자들은 “이때문에 전국체전의 성적은 ‘돈’과 직결되고 있으며 경기도가 타 시·도의 두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5연패의 야망을 쌓을 수 있었다”며 “예산난 때문에 광주·전남 체육계가 내년과 내후년 개최도시로서 최소한의 체면유지라도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환상의 피겨스케이팅 이탈리아의 페데리카 파이엘라와 마시모 스칼리지가 6일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열린 ‘스케이트 캐나다’ 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 자유종목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챔프는 우리 것” 4구 동성

11일 성남·서울·12일 수원·포항 플레이오프 4개팀 감독 우승 장담



2006 삼성 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성남, 수원, 포항, 서울의 4팀(龍) 사령관들이

6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모여 11일(성남·서울·오후 2시 단천종합운동장)과 12일(수원·포항·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 잇따라 치러질 플레이오프전을 앞둔 각 팀의 준비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냈다.

올 시즌 전기리그 우승으로 가장 먼저 PO 진출을 확정지었던 성남 김학범 감독은 “우리는 지난해에 이어 또 올 시즌 우승을 향해 달려나갈 것”이라며 “90분을 소화하긴 어렵지만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원의 차 감독은 “이동국이 자신의 실력을 다시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히려 이동국의 출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또 서울의 이상수 감독은 “다른 팀들은 일찌감치 PO에 진출해 휴식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바닥에 떨어진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고 엄살(?)을 피했다.

반면 서울의 상대팀인 성남의 김학범 감독은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오히려 경기장 분위기가 서울의 홈 경기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열악한 홈 팬들의 응원에 대한 우려의 말을 내비쳤다.

12일 포항과 경기를 치르는 후기리그 우승팀 수원의 차 감독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넘겨왔다. 포항전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준비하겠다”며 각오

를 내비쳤다.

PO에 진출한 4팀 중 유일한 외국인 감독인 포항의 세르지오 파리아스 감독은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 여기까지 온 만큼 최선을 내서 반드시 우승을 바라보겠다”며 공격적인 출사표를 내놨다.

단판승부로 챔피언전을 결정하는 만큼 4명의 감독들이 생각하는 ‘승부수’ 역시 다양하게 나왔다.

포항의 파리아스 감독은 “단판으로 끝나는 경기인 만큼 올 시즌 수원과 치렀던 승부는 모두 있어야 한다. 특히 부상에서 회복한 이동국이 팀 훈련에 가세하면서 팀 분위기와 경기내용이 좋아졌다”며 “90분을 소화하긴 어렵지만 경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수원의 차 감독은 “이동국이 자신의 실력을 다시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히려 이동국의 출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또 서울의 이상수 감독은 “다른 팀들은 일찌감치 PO에 진출해 휴식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며 “바닥에 떨어진 선수들의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다.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하다”고 엄살(?)을 피했다.

반면 서울의 상대팀인 성남의 김학범 감독은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오히려 경기장 분위기가 서울의 홈 경기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열악한 홈 팬들의 응원에 대한 우려의 말을 내비쳤다.

12일 포항과 경기를 치르는 후기리그 우승팀 수원의 차 감독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넘겨왔다. 포항전 역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준비하겠다”며 각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일 오전 축구협회에서 열린 K리그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감독들이 손을 맞잡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포항 파리아스 감독, 수원 차범근 감독, 성남 김학범 감독, 서울 이상수 감독. /연합뉴스